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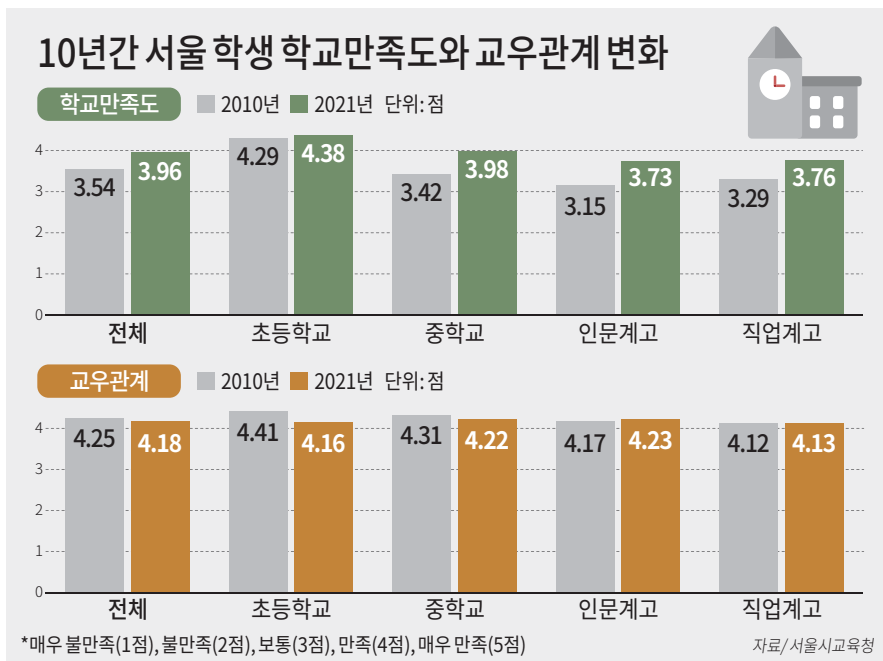
서울학생, 학교·교사 만족도 높아지고 교우관계 어려워졌다

2010년→2021년 달라진 학교생활
시교육청, 학교만족도 0.42점 상승
교사만족도 3.62점→4.17점으로
교우관계 4.25점→4.18점 하락

최근 10년간 학생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교우 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17일 '지난 10년, 서울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나'를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툭아보는 서울교육'을 온라인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보원은 2010년부터 시작된 1기와 2021년부터 시작된 2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영역 공통 문항 전체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기별 양상을 분석했다. 각 공통문항의 답변은 매우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나누어 점수로 나타났다.

◆ 학교 시설·환경 만족도 높지만, 학교급 높아질수록 ↓



연도 간 결과를 비교하면, 2010년 3.54점이던 서울 학생 전반적인 학교만족도는 2021년 3.96점으로 0.42점 높아졌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학교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3.2점에서 2021년 3.88점으로 0.68점 올랐다. 학습능력 배양의 경우 0.66점, 특기·적성 계발은 0.64점 적절한 수준의 교수는 0.48점 증가했다.

단,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만족도는 2010년과 2021년 모두 학교급이 높

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학교급별 학교만족도를 보면, ▲초등학교(4.29→4.38) ▲중학교(3.42→3.98) ▲인문계고(3.15→3.73) ▲직업계고(3.29→3.7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고등학교급 내에서는 직업계고 대비 인문계고가 더 낮았으며, 이는 2010년과 2021년 모두 동일했다.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2010년 3.62점으로 '보통' 수준이던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 만족 수준인 4.17점으로 0.55점 올랐다. 특히 중학생들이 느낀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올라 2010년 3.46점에서 2021년 4.2점으로 0.74점 뛰었다. 인문계고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2010년 3.3점에서 2021년 3.99점으로 0.69점 증가했다.

◆ 초등생 교우관계 어려움 가장 커…방과후학교 참여도 ↓ 만족도 ↑

교우관계 점수가 소폭 하락했다. 초·중고 전체적으로 4.25점이었던 교우관계 점수는 2021년 4.18점으로 낮아졌다. 교우관계는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휴식시간 등에 친구와 함께 지내는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질문했다. 특히, 초등학생이 4.41점에서 4.16점으로 가장 크게 하락해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교우관계도 4.31점에서 4.22점으로 하락했다.

단, 인문계고는 2010년 4.17점에서 2021년 4.23점으로 0.06점, 직업계고는 2010년 4.12점에서 2021년 4.13점으로 0.01점 올랐다.

정지숙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초·중등학생 31.5%가 코로나19 이후 교우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43.2%가 친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 1기에 서울 초·중·고 학생 1만6287명, 2기에는 1만4406명이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지원 강화

서울시,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자격
13세 이하 2자녀→18세 이하 2자녀
서울대공원·식물원 등 전면 무료

서울시는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 자격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가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학원비(10% 할인, 최대 2만원), 대중교통요금(최대 연 6만원 할인) 같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할인 혜택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만 14~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앱카드)을 통해 '뉴 다동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이다.

50% 할인되는 공공시설은 ▲서울시공영주차장 131개소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서울시민대학 ▲시립체육시설이다.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와 공영주차장, 서울상상나라 할인은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혜택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자녀 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종전(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 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동이 부모님들이 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다자녀 가족이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만큼은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만 13세 이하까지만 적용됐던 혜택도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파주 임진각서 20일 '평화음악회' 개최

경기도, 총 3부로 국카스텐 등 출연

경기도는 오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 오프닝 행사 가운데 하나로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은 '더 큰 평화'를 주제로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중 개최되는 행사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렛츠 디엠지(Let's DMZ)'에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로 명칭을 개편했다.

디엠지를 주제로 열리는 '평화음악회'는 총 3부 공연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의 뮤지션이 출연할 예정이다.

1부 공연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국악과 서양음악 퓨전 장르를 연주하는 '경기팝스 앙상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경기도 홍보대사 '드림위드앙상블', 육군 제1군단 광개토부대 군악대가 출연한다.

2부는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이어지며, '명' 오페라단 소속 어린이합창단, 슈퍼스타K(시즌7) 출신의 '팍팍하늘', 경기소방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완이화'가 출연한다.

3부는 오후 5시부터 6시 20분까지 진행되며, 국내 최초 뮤지컬과 팝 음악을 접목한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를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윤의중이 직접 지휘하며, 가수 하현우가 싱어로 있는 국내 대표 록밴드 '국카스텐'이 출연한다. /의정부(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삼육대,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신설

내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는 첨단학과인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정원 30명)를 미래융합대학 내에 신설하고, 올해 2024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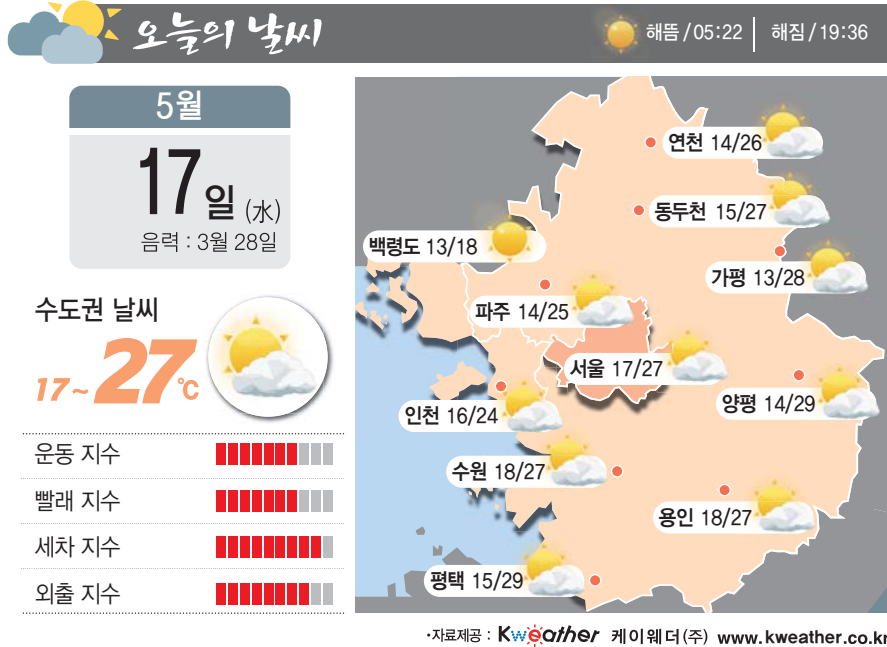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의 성

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탄탄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과 전인적 소양을 겸비한 창의적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한다.

1·2학년 과정은 기존 컴퓨터공학과와 인공지능융합학부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 이론과 프로그래밍 관련 교과목을 배운다. 3·4학년

과정은 여기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특화된 '데이터공학트랙', '클라우드컴퓨팅트랙'을 운영한다.

데이터공학트랙은 ▲소셜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마ining ▲데이터시각화 ▲소셜빅데이터분석 ▲클라우드기반 빅데이터분석 등 과목을 배운다. 클라우드컴퓨팅트랙의 주요 교과목은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가상화 ▲클라우드인프라관리 ▲클라우드운영 ▲클라우드DevOps자동화 등이다. /이현진 기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국방부, 광 미사일 방어망 전방위 확대…북 미사일 대비용 /사진 뉴시스
▲美특검 “2016년 FBI 러시아 스캔들 수사 잘못”

▲다가정용 전기요금 6월부터 인상…인상폭은 추후 결정
▲日 기사다, 24일 호주 시드니 개최 워드 정상회의 참석



▲中 고위 외교대표, 우크라이나·러시아 등 방문…중재 본격시도
▲中, 165년만에 러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되찾아 /사진 뉴시스